

##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 도구(CAPP-SR) 타당화 연구: 한국 수형자 집단을 중심으로

서 종 한<sup>†</sup>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CAPP 모델 기반의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CAPP-SR)를 타당화하는 데 있다. CAPP-SR은 CAPP 모델에 기반을 두어 33개 증상, 6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99문항의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이다. 이를 위해 전국 11개 교도소에 수용 중인 311명의 재소자를 계층(체계)적 표집 방법을 중심으로 모집이 이루어졌다. CAPP-SR 간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에서 타당화 된 한국판 삼원사이코패시 평가도구(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한국판 레빈슨 자기보고 사이코패시 평가 척도(Levenson's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한국판 단축형 해악적 성격 검사(Short Dark Tetrad; SD-4), KORAS-G(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General)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도구에 비해 CAPP-SR의 추가적 설명력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CAPP-SR 6개 요인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APP-SR 증상은 개념적으로 대칭되는 다른 척도의 요인들과 일관성 있게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수렴타당도와 증분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의 CAPP-SR의 일반화 가능성과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으며 사이코패시 성격장애(PPD)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 사이코패시 성격장애(PPD),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 자기보고식, 수형자

---

<sup>†</sup> 교신저자: 서종한,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경산시 대학로 280, [jonghansea@yu.ac.kr](mailto:jonghansea@yu.ac.kr)

사이코패시 성격장애(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 이하 ‘PPD’)는 국내외 다양한 범임상(forensic-clinical) 현장에서 적용되는 학술적 개념으로 수 세기에 걸쳐 실증연구가 이뤄지고 있다(Cleckly, 1941; McCord & McCord, 1964; Hare, 2003; Cooke et al., 2004; Patrick & Drislane, 2015; Pinel, 1806). 대표적으로 DSM(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APA, 1952, 2013), ICD(국제질병분류표준; WHO, 2008) 등에서 진단 기준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자기보고식 평가(예, TriPM; Patrick, 2010) 혹은 진단척도(예, PCL-R, Hare, 1991; PCL:SV, Hart, Cox, & Hare, 1995) 등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성격장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부터 사이코패시와 관련된 조작적 개념 구성 요인에서 각국의 학자들마다 핵심 증상을 일부 상이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활용되는 사이코패시 진단 혹은 평가 도구도 대상과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Skeem & Cooke, 2010).

최근 국내외 교정, 사법행정,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 많은 영역에서 사이코패시 개념을 재범위험성, 심리치료, 처우, 양형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범죄자로 한정해서 연구되어 왔던 것이 현재는 지역사회 일반인들까지 확장하여 실증 연구가 진행(Babiak & Hare, 2007)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이나 특정 단체, 조직, 기관에서 일정 비율의 성공적(비범죄적) 사이코패스가 밝혀지고 있다(Patrick, 2008). 대표적으로 Babiak 등(2010)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서 사이코패시 특질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특히 Neumann과 Hare (2008)는 일반인 사이코패스가 다양한 수준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해악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문화, 인종, 지역, 집단과 세대에 상관없이 사이코패시 성격장애(PPD)가 범주적 차원에서 발현된다는 기존의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평가도구의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술 영역에서 사이코패시 성격에 대한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사이코패시에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특질이 무엇인지, 기능손상과 특질 극한성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등)는 학자마다 다르게 주장되고 있다. 그 예로 반사회성과 관련된 사이코패시 증상(소위 일탈적 행동이 사이코패시 개념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으며(Cooke, Michie, & Skeem, 2007; Hare & Neumann, 2006), 최근에는 사이코패스가 갖는 유사하거나 친사회적인 대담성(불안결핍) 등에 대한 긍정적 역할 또한 주장되고 있다(Patrick, 2008; Lilienfeld & Widows, 2005).

이런 논쟁 중, 일부 연구자들이 다양한 이론(TriPM, LSRP, PPI-R, a Five Factor Model, Hexaco Model)과 기존 검증된 실증 연구 등의 문헌검토를 통해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 도구(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ooke, Hart, & Logan, 2012)를 개발했다.

어휘가설 기반(Saucier & Goldberg, 2002)의 CAPP 모델은 기존의 협소한 개념 수준을 담고 있는 기존 도구들과는 달리 사이코패시 증상과 특질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만들어졌다(Cooke et al., 2003, 2013). 예컨대 유럽, 북미 등에서 사이코패시 성향의 내담자를 다루고 있던 임상가를 대면으로 만나 사이코패시와 관련된 개별 증상을 심층적으로 조사

(bottom-up)했으며, 이전에 출판된 사이코패시 관련 문헌(예, Cleckley 저서 등)을 검토하여 포괄적 수준에서 증상을 선별하여 분류했다(Hare, 1998, 2003; Cleckley, 1941/1976; McCord & McCord, 1964). 이렇게 선별된 증상들은 일반인들도 쉽게 그 증상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일상적인 자연어로 변환되었다.

Cooke 등(2003, 2013)은 99개의 기술형용사로 구성된 CAPP 사이코패시 마인드 개념 지도(CAPP mind-mapping model)를 최종적으로 구성했다. 99개 사이코패시 증상을 내용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경험적·논리적·합리적 수준에서 33개의 하위 증상과 6개 하위 영역 수준으로 세분화하였다.

CAPP 모델 6개 영역은 개념적 수준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애착(attachment), 행동(behavioral), 인지(cognitive), 지배성(dominance), 정서성(emotionality), 자기(self)로 구성되었다(Cooke et al., 200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착(attachment; Cooke et al., 2003)영역은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교류, 친밀, 유대, 애착 형성에 기반이 되는 믿음과 신뢰, 공감과 관련된 문제를 일컫는다. 대표적 증상으로 무심한, 신뢰로운 관계가 없는, 공감하지 못하는, 무정한 등이다. 행동영역(behavioral; Cooke et al., 2003)은 자극추구, 타인에 대한 적대성, 탈억제성, 충동성,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 있다. 대표적으로 끈기가 부족한, 믿을 수 없는, 무모한, 산만한, 방해하는, 공격적인 등의 증상이다. 인지(cognitive; Cooke et al., 2003)영역은 주의와 집중, 다양한 사고와 대안적 해결에 필요한 융통성, 타인에 대한 믿음과 태도, 집중력과 계획성 등과 관련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심하는, 집중력이 부족한, 편협한, 융통성이 없는,

계획성이 부족한 등이 대표적이다.

지배성(dominance; Cooke et al., 2003)영역은 관계에서 타인을 조종·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통제와 주도성을 갖고 대인관계를 지배하려는 특성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적대적인, 지배하려 드는, 기만적인, 조종하는, 가식적인, 수다스런 등이다. 정서성(emotionality; Cooke et al., 2003)영역은 정서적인 불안정성 뿐 아니라 감정표현이 빈약하거나 알아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가책과 불안감이 결핍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대표적으로 불안감이 부족한, 즐거움이 부족한, 감정 깊이가 부족한, 감정 안정성이 부족한, 죄책감이 부족한 등이다. 마지막으로 자기(self; Cooke et al., 2003)영역은 자신의 개성, 개념, 성격, 도식, 자질, 욕구, 자기평가 등 자신에 대해 갖는 자아-정체성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자기 과시적인, 자기 특별의식, 자기 특권의식, 자기 불사신 의식, 자기 정당화, 불안정한 자기개념 등이다.

그간에 CAPP 모델은 다양한 국가(한국 등 24개국)에서 번역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실증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되고 있다(Florez et al., 2015; Hoff et al., 2012; Kreis et al., 2012; Sorman et al., 2014; 서종한, 신강현, 김경일, 2018; 서종한, 김경일, 2019; 최선희, 서종한, 2019). 대표적으로 사이코패시 원형분석(prototypicality analysis; Kreis, 2008)이 국내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원형성 평가자(임상가, 내용전문가, 일반인 등)의 특성(성별, 세대, 사이코패시 배경지식 등 정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CAPP 영역이 포일 증상(사이코패시와 상관없는 증상)에 비해 사이코패시 성격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표적으로 6개 영역 중 정서성,

애착, 자기영역에서 일반인들이 사이코패시 원형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Verchueren & te Kaat, 2019; 서종한, 신강현, 김경일, 2018).

계량심리적 측면에서 Pederson 등(2010)의 예측 타당도 연구는 폭력 범죄와 일반 범죄 재범 예측 수준에서 CAPP 모델 기반의 도구가 PCL-R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에서 예측력이 좋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른 준거 척도들 TriPM(Patrick, 2008), PCL: SV(Hart et al., 1995)와 PCL-R(Hare, 2003)과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Florez et al., 2017).

최근, CAPP 모델을 기반으로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CAPP Self-Reporting; CAPP-SR) 도구가 개발됐으며 면담기반 CAPP-IRS와 함께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Sellbom & Cooke, 2020). CAPP-SR은 수형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병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며 자기보고 형식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쉽게 반응할 수 있게 되어 삼원사이코패시 척도(TriPM)처럼 가용성을 더 높였다. CAPP-SR은 기본적으로 CAPP 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6개요인 9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미국과 뉴질랜드 일반인들과 리투아니아 내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타당화가 이뤄졌다(Sellbom, Cooke, & Shou, 2019; Sellbom, Laurinaityte, & Laurinavicius, 2020).

그 결과를 살펴보면, 대표인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 평가도구들인 TriPM(Patrick, 2008), SRP-4(Paulhus et al., 2016), E-LSRP(Levenson SRP 확장형; Christian & Sellbom, 2016), EPA-SF(Lynam et al., 2013)와 EPA-SSF(Collinson, Miller, Gaughan, et al., 2016), YPI-S(YPI 단축형; van Baardewijk et al., 2010) 등의 준거 척도 간 수렴타당도를 분석했는데 집단 유형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Sellbom et al., 2019; Sellbom et al., 2020). 일반 시민 혹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높은 타당도를 보여 향후 경영, 기업, 조직,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이코패시 증상과 관련된 성격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앞서 이뤄진 탐색적 수준의 두 연구(Sellbom et al., 2019; Sellbom et al., 2020)와 같은 맥락에서 CAPP-SR의 국내 타당화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교도소 수용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CAPP-SR 한국판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판 CAPP-SR과 TriPM, LSRP, SD-4(한국판 서종한, 2020), KORAS-G(이수정 & 고려진, 2011) 척도 간 상관을 분석했다. 또한 기존 자기보고식 평가도구 TriPM(예: 대담성, 비열함, 탈억제성), LSRP(예: 자기 중심성, 냉담성, 반사회성), SD-4(예: 마키아벨리즘, 자기애성, 사이코패시, 가학성)에 대해 CAPP-SR이 유의미한 증분 설명력(incremental validity)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기본적으로 원저자(Sellbom et al., 2019)의 개발 의도에 따라 CAPP-SR 하위 6개 요인은 개념적으로 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속성을 띠고 있으며 하위 요인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33개 증상을 주제를 중심으로 묶여진 도구이다. 따라서 이론적, 개념적 수준에서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구조가 아니며 일차원성의 고차원 요인들로 보지 않는다(Cooke & Sellbom, 2018; Sellbom et al., 2015; Sellbom et al., 2020; 서종한 등, 2018). 다만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기존에 상정된 6요인 모형의 적합성을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참가대상자

교정본부 산하 전국 교도소를 배분하여 계층적 표집방식을 통해 모집이 이뤄졌다. 계층적(혹은 체계적) 표집방식은 전국 교정청 산하 교도소로 일정 표본 수를 배분하여 체계적으로 나누어 각 참여 대상자는 무선적으로 선발하는 형식이다. 최종적으로 전국 11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320명을 모집하였고, 이 중 9명은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윤리적 의무, 철회 및 폐기 요청 권리,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자가 방문하여 고지한 후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진행했다. 모든 대상자는 연구 참여가 끝난 후에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 받았다. 전체 311명의 수형자 중 304명(97.7%)은 남성, 7명(2.3%)은 여성이었다. 평균 나이는 40.18세(표준편차: 12.57)였고, 만 16세에서 72세 사이 연령 범위를 보였다. 이들 중 기혼 103명(33.1%), 미혼 158명(50.8%), 사실혼 혹은 동거 중 45명(14.5%)이었다. 교도소 입소 직전을 기준으로 직업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19.9%, 일용직 등 불안정한 직업 생활을 이어간 경우가 25.4%, 6개월 이상 정규/비정규직의 일정한 직업을 가진 경우가 53.7%였다. 학력을 살펴보면 초졸 이하(무학포함)가 4.5%, 고졸이하가 65.2%, 대졸 이하가 28.2%, 대학원

졸 이하가 1.6%였다. 본 범죄(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건)의 경우 살인 7명(2.3%), 성폭행 161명(51.8%), 재산범죄(예, 강·절도) 10명(3.2%), 폭력 등 (중)상해(과실치사 포함) 24명(7.7%), 사기 5명(1.6%), 약물 등 관련 법 위반 41명(13.2%), 기타(사이버 범죄, 스토킹, 성매매 등) 등 63명(20.3%)이었다. 과거 선고를 받고 수감된 경우 54%였고 평균 1.95회(표준편차: 4.42)였다. 횡수별로 살펴보면 10회 이상인 경우 10명(3.2%), 5회 이상인 경우 26명(8.3%), 2회 이상인 경우 66명(21.2%), 1회인 경우 66명(22.1%)이었다.

### 평가척도

#### 본 척도,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 도구(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Self Report)

CAPP-SR은 전체 9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33개 증상,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각 영역은 애착(4개 증상, 12문항), 행동(6개 증상, 18문항), 인지(5개 증상, 15문항), 지배성(6개 증상, 18문항), 정서성(5개 증상, 15문항), 자기(7개 증상, 21문항)로 구성되었고 개별문항 평가는 4점 리커트 척도(1점=아니다~4점=그렇다)로 이뤄진다. 본 연구에서 전체점수와 각 6개 영역 간 상관 수준은 .58에서 .86사이로 높았고 Cronbach  $\alpha$ 는 .68에서 .98사이에서 내적 일관성이 좋았다.

#### 삼원 사이코패시 평가도구(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TriPM(Patrick, 2010; 한국판, 최선희, 서종한, 2018)은 58개의 문항 총 3개 영역(대담성, 탈역제성, 비열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문

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1점=그렇지 않다~4점=그렇다) 구성되어 있다. 3개 영역 58개 문항의 K-TriPM을 본 연구를 위해 사용했다. 첫 번째 대담성 영역은 19문항이며 이 중 10문항은 역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비열함 영역은 19개 문항으로 이 중 역산문항은 5개이다. 마지막으로 탈억제 영역은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2개가 역산문항이다. 항목 구성 순서는 임의적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87이었다.

#### **Levenson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 평가 척도 (Levenson Self-Reporting Psychopathy Scale)**

Levenson 등(1995)의 SRP 척도(한국판, 이유경, 박소향, 서종한, 2021)는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3개 영역(자기중심성, 냉담성, 반사회성)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정말 아니다, 2=아니다, 3=그렇다, 4=정말 그렇다)에 기반을 두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LSRP 전체 점수(26문항), 1요인(16문항), 2요인(10문항) 간 알파 값은 각각 .83, .82, .61이었다. 2요인이 낮은 알파지수를 보이는 것은 이전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Hicklin & Widiger, 2005; Ross et al., 2004). 국내에서는 이유경 등(2021)이 번안하여 타당화했다. 본 연구에서도 전체점수, 1요인, 2요인 Cronbach  $\alpha$ 는 각각 .82, .85, .66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와 비슷한 값을 보였다.

#### **해악적 성격 4요인-단축형(Short Dark Tetrad)**

SD-4(Jones & Paulhus, 2014; 한국판, 이유경, 최재란, 서종한, 2021)는 해악적 성격유형으로 알려진 마키아벨리즘, 자기애성, 사이코패시, 가학성을 평가하기 위해 총 35문항으로 구성

하여 만들어졌다. 각 유형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매우 아니다 ~ 매우 그렇다)를 기반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SD-4의 신뢰도는 .71에서 .80을 보이고 있다(Chabrol et al., 2009; Furnham, Richards, & Paulhus, 2013; Trémolière & Djeriouat, 2016).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87을 나타냈다.

#### **한국재범위험성평가도구(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General; 이하 KORAS-G)**

KORAS-G는 이수정과 고려진 (2011)에 의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체 17개 문항(2점, 3점 척도와 4점 척도 혼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최초 경찰 입건 나이, 청소년기 시설수용 경험, 과거 범죄기록, 동종 전과 여부와 횡수, 처분기간 동안 문제행동, 학령기 문제행동, 알코올 혹은 약물 사용, 본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 반사회적 경향, 기타 취약 사항 등이다. 총 24점 중 13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수정과 고려진(2011)의 총 17문항에 대한 Cronbach  $\alpha$  지수는 .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다소 높은 .76 수준이었다.

#### **자료분석**

개념적 수준에서의 사이코패시 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탐색적요인분석을 위해 Mplus 7.0을 활용하였다. 요인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CFI, TLI, RMSEA 지표 값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CAPP-SR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준거 척도 간의 상관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TriPM 하위영역 대담성, 탈억제성, 비열함, LSRP 하

위영역 자기중심성, 냉담성, 반사회성, SD-4의 마키아벨리즘, 자기애성, 사이코패시, 가학성 간의 상관관계( $r$ )를 분석했다. 또한 한국재범위험성평가 간의 상관을 분석했다. 이후 CAPP-SR의 기존 척도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과 2단계 위계적 회귀 분석도 함께 실시했다.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 SPSS 25.0을 사용했다.

### 결 과

표 1은 수형인 집단의 요인 모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대표적인 적합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형인 집단의 최적 모형을 알아보고자 CAPP-SR 연구에서 상정된 6요인(애착, 행동, 인지, 지배성, 정서성, 자기) 모형(Sellbom et al., 2020; Sellbom et al., 2019)과 그 이외의 모형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기존 상정된 6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FI=.933, TLI=.905, RMSEA=.049).

표 2는 CAPP-SR과 TriPM, LSRP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CAPP-SR은 총점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r$ 범위 = -.227~.746). 다만 대담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r$ =-.229). 각 CAPP-SR 영역별로 TriPM과 LSRP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담성을 제외하고 애착( $r$ =.471~.664), 행동( $r$ =.435~.675), 인지( $r$ =.457~.752), 지배성( $r$ =.398~.602), 정서성( $r$ =.396~.652), 자기( $r$ =.172~.447)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대담성과는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애착( $r$ =-.333), 행동( $r$ =-.248), 인지( $r$ =-.364), 지배성( $r$ =-.602), 정서성( $r$ =-.288), 자기( $r$ =.075)였다.

표 3은 CAPP-SR과 SD-4, KORAS-G 간의 상관관계 결과이다. 전체점수를 기준으로 SD-4의 4개 영역과 정적 관련성을 보였고 특히 사이코패시 영역( $r$ =.611)과 가학성 영역( $r$ =.653) 간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KORAS-G 총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251).

CAPP-SR 하위 6개 요인과 SD-4 4개 영역 간 상관관계는 자기애성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애착( $r$ 범위=.169~.498, 자기애성=n.s.) 행동( $r$ 범위=.570~.620, 자기애성=n.s.), 인지( $r$ 범위=.313~.588, 자기애성=n.s.), 지배성( $r$ 범위=.356~.710), 정서성( $r$ 범위=.202~.480, 자기애성=n.s.), 자기( $r$ 범위=.325~.613)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1. 수형인 집단의 요인 모형에 대한 탐색적요인분석

모형	$\chi^2$	df	$p$	CFI	TLI	RMSEA
2-factor	2229.851	701	<.001	.791	.767	.084
3-factor	1776.661	663	<.001	.847	.820	.073
4-factor	1424.865	626	<.001	.891	.864	.064
5-factor	1232.812	590	<.001	.912	.884	.059
6-factor	1047.401	555	<.001	.933	.905	.049

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표 2. CAPP-SR와 TriPM, LSRP 요인 간의 Pearson 상관관계(*r*)

CAPP-SR 증상	TriPM				LSRP			
	전체	대담성	비열함	탈억제성	전체	자기중심성	냉담성	반사회성
<b>전제점수</b>	<b>.627**</b>	<b>-.229**</b>	<b>.639**</b>	<b>.638**</b>	<b>.746**</b>	.619**	.466**	.696**
<b>애착(A)</b>	<b>.503**</b>	<b>-.333**</b>	<b>.643**</b>	<b>.504**</b>	<b>.664**</b>	.508**	.471**	.558**
A1. 무심한	.329**	-.364**	.448**	.397**	.495**	.379**	.261**	.464**
A2. 신뢰로운 관계가 없는	.422**	-.152**	.433**	.426**	.512**	.432**	.353**	.436**
A3. 공감하지 못하는	.431**	-.173**	.584**	.340**	.510**	.371**	.403**	.426**
A4. 무정한	.266**	-.274**	.395**	.284**	.394**	.278**	.349**	.277**
<b>행동(B)</b>	<b>.553**</b>	<b>-.248**</b>	<b>.539**</b>	<b>.609**</b>	<b>.675**</b>	.507**	.435**	.666**
B1. 끈기가 없는	.363**	-.337**	.397**	.474**	.549**	.361**	.339**	.532**
B2. 믿을 수 없는	.303**	-.238**	.325**	.373**	.431**	.244**	.416**	.369**
B3. 무모한	.499**	-.226**	.411**	.609**	.578**	.438**	.289**	.566**
B4. 산만한	.294**	-.228**	.301**	.371**	.403**	.265**	.254**	.423**
B5. 방해하는	.446**	.125*	.412**	.312**	.411**	.395**	.296**	.407**
B6. 공격적인	.442**	-0.068	.439**	.403**	.468**	.435**	.285**	.479**
<b>인지(C)</b>	<b>.547**</b>	<b>-.364**</b>	<b>.587**</b>	<b>.633**</b>	<b>.752**</b>	.559**	.457**	.708**
C1. 의심하는	.388**	-.195**	.435**	.397**	.517**	.413**	.370**	.464**
C2. 집중력이 부족한	.402**	-.362**	.415**	.536**	.622**	.445**	.350**	.600**
C3. 편협한	.478**	-.215**	.538**	.473**	.583**	.506**	.387**	.538**
C4. 융통성 없는	.355**	-0.070	.360**	.327**	.407**	.338**	.192**	.448**
C5. 계획성이 부족한	.325**	-.426**	.349**	.504**	.533**	.288**	.323**	.456**
<b>지배성(D)</b>	<b>.602**</b>	<b>0.009</b>	<b>.516**</b>	<b>.549**</b>	<b>.590**</b>	.591**	.398**	.513**
D1. 적대적인	.500**	-.144*	.534**	.467**	.565**	.456**	.289**	.586**
D2. 지배하려 드는	.309**	.343**	.171**	.147**	.155**	.280**	.063**	.154**
D3. 기만적인	.482**	-0.101	.440**	.484**	.495**	.408**	.520**	.357**
D4. 조종하는	.487**	-0.041	.427**	.465**	.540**	.553**	.409**	.425**
D5. 가식적인	.306**	0.054	.207**	.290**	.279**	.354**	.183**	.211**
D6. 수단스런	.423**	-0.108	.380**	.441**	.425**	.389**	.199**	.411**
<b>정서성(E)</b>	<b>.509**</b>	<b>-.288**</b>	<b>.623**</b>	<b>.501**</b>	<b>.652**</b>	.503**	.396**	.614**
E1. 불안감이 부족한	0.104	.401**	0.059	-.124*	-.137*	-0.010	.130**	-.138**
E2. 즐거움이 부족한	0.082	-.454**	.248**	.216**	.290**	.123**	.199**	.256**
E3. 감정 깊이가 부족한	.281**	-.294**	.358**	.347**	.446**	.350**	.228**	.415**
E4. 감정 안정성이 부족한	.462**	-.274**	.479**	.529**	.624**	.477**	.298**	.656**
E5. 죄책감이 부족한	.428**	-0.104	.524**	.337**	.495**	.397**	.486**	.407**
<b>자기(S)</b>	<b>.432**</b>	<b>0.075</b>	<b>.323**</b>	<b>.387**</b>	<b>.410**</b>	.447**	.172**	.429**
S1. 자기 중심적인	.393**	-.236**	.360**	.488**	.536**	.452**	.179**	.505**
S2. 자기 과시적인	0.058	.385**	-0.087	-0.076	-0.105	.066**	.068**	-.050*
S3. 자기 특별의식	.306**	.222**	.219**	.180**	.224**	.271**	.110**	.239**
S4. 자기 특권의식	.248**	.199**	.171**	.140**	.193**	.327**	.100**	.183**
S5. 자기 불사신 의식	0.107	.412**	0.010	-0.089	-0.099	.081**	0.020	-.137**
S6. 자기 정당화	.390**	-.236**	.389**	.461**	.512**	.383**	.210**	.560**
S7. 불안정한 자기개념	.342**	-.392**	.323**	.530**	.475**	.328**	.227**	.507**

주. CAPP-SR=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y Personality-Self Reporting; TriPM= 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L-SRP=Levenson Self-reporting Psychopathy Scale; \*p<.05, \*\*p<.01, \*\*\*p<.001



표 3. CAPP-SR와 SD-4, KORAS-G 요인 간의 Pearson 상관관계(*r*)

CAPP-SR 증상	SD-4					KORAS-G
	전체	마키아벨리즘	자기애성	사이코패시	가학성	
<b>전제점수</b>	<b>.637**</b>	<b>.346**</b>	<b>.164**</b>	<b>.611**</b>	<b>.653**</b>	<b>.251**</b>
<b>애착(A)</b>	<b>.357**</b>	<b>.169**</b>	<b>-0.089</b>	<b>.393**</b>	<b>.498**</b>	<b>.205**</b>
A1. 무심한	.244**	.176**	-.137*	.260**	.367**	0.059
A2. 신뢰로운 관계가 없는	.444**	.252**	0.107	.448**	.433**	.218**
A3. 공감하지 못하는	.256**	.117*	-0.061	.266**	.371**	.158**
A4. 무정한	0.066	-0.078	-.183**	.143*	.259**	.155**
<b>행동(B)</b>	<b>.570**</b>	<b>.274**</b>	<b>0.105</b>	<b>.578**</b>	<b>.620**</b>	<b>.245**</b>
B1. 끈기가 없는	.331**	.207**	-0.059	.332**	.430**	.130*
B2. 믿을 수 없는	.145*	0.073	-.144*	.183**	.271**	0.096
B3. 무모한	.495**	.267**	0.058	.583**	.474**	.256**
B4. 산만한	.353**	.137*	0.054	.381**	.400**	.176**
B5. 방해하는	.532**	.245**	.353**	.430**	.462**	.162**
B6. 공격적인	.503**	.230**	.182**	.459**	.525**	.173**
<b>인지(C)</b>	<b>.515**</b>	<b>.313**</b>	<b>-0.006</b>	<b>.533**</b>	<b>.588**</b>	<b>.188**</b>
C1. 의심하는	.444**	.264**	.124*	.404**	.449**	.147*
C2. 집중력이 부족한	.361**	.245**	-0.088	.408**	.434**	.175**
C3. 편협한	.464**	.242**	.113*	.440**	.494**	0.109
C4. 융통성 없는	.445**	.245**	.227**	.404**	.375**	.149**
C5. 계획성이 부족한	.132*	.118*	-.362**	.243**	.340**	0.080
<b>지배성(D)</b>	<b>.710**</b>	<b>.436**</b>	<b>.356**</b>	<b>.587**</b>	<b>.623**</b>	<b>.263**</b>
D1. 적대적인	.469**	.261**	.131*	.435**	.481**	.190**
D2. 지배하려 드는	.503**	.233**	.563**	.373**	.268**	0.083
D3. 기만적인	.394**	.259**	0.040	.329**	.465**	.268**
D4. 조종하는	.587**	.387**	.252**	.490**	.527**	.233**
D5. 가식적인	.476**	.343**	.261**	.340**	.405**	.148**
D6. 수다스런	.496**	.314**	.186**	.453**	.444**	.171**
<b>정서성(E)</b>	<b>.412**</b>	<b>.202**</b>	<b>0.005</b>	<b>.448**</b>	<b>.480**</b>	<b>.206**</b>
E1. 불안감이 부족한	.130*	-0.013	.392**	0.006	-0.008	0.008
E2. 즐거움이 부족한	-.144*	-0.086	-.468**	0.034	0.080	0.041
E3. 감정 깊이가 부족한	.218**	.191**	-0.035	.246**	.214**	0.035
E4. 감정안정성이 부족한	.490**	.267**	0.051	.528**	.516**	.204**
E5. 죄책감이 부족한	.406**	.179**	0.112	.358**	.470**	.265**
<b>자기(S)</b>	<b>.613**</b>	<b>.325**</b>	<b>.452**</b>	<b>.512**</b>	<b>.448**</b>	<b>.148**</b>
S1. 자기 중심적인	.448**	.335**	0.060	.454**	.415**	.149**
S2. 자기 과시적인	.336**	.118*	.604**	.151**	0.096	0.083
S3. 자기 특별의식	.485**	.224**	.554**	.334**	.273**	0.059
S4. 자기 특권의식	.447**	.223**	.464**	.289**	.294**	.136*
S5. 자기 불사신 의식	.255**	0.056	.430**	.146**	0.096	0.060
S6. 자기 정당화	.396**	.247**	0.056	.416**	.388**	0.039
S7. 불안정한 자기개념	.252**	.179**	-.220**	.387**	.344**	0.101

주. CAPP-SR=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y Personality-Self Reporting; SD-4=Short Dark Tetrad; KORAS-G=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General;  
\**p*<.05, \*\**p*<.01, \*\*\**p*<.001

KORAS-G와는 높은 상관은 아니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애착( $r=.205$ ), 행동( $r=.245$ ), 인지( $r=.188$ ), 지배성( $r=.263$ ), 정서성( $r=.206$ ), 자기( $r=.148$ )였다.

표 4는 TriPM, LSRP에 대한 CAPP-SR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이다. CAPP-SR 33개 하위 증상 중  $r=.30$ (중간수준 이상; Sellbom et al., 2020) 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TriPM, LSRP 요인을 최종 준거변인으로 선택했다( $r > |.30|$ ). 이에 따라 .30 이하의 증상은 다중회귀 분석에서 모두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TriPM 회귀식에서 예측변인으로 선택한 CAPP-SR 증상 수는 TriPM 총점에서는 25개, TriPM-대담성에서는 10개, TriPM-비열함은 25개, TriPM-탈억제성은 24개였다. 또한 준거변인 LSRP를 예측하는 경우 CAPP-SR 하위 증상 수는 LSRP-총점에서 26개, LSRP-자기중심성에서 24개, LSRP-냉담성에서 12개, LSRP-반사회성에서 24개였다. 표 4에 제시된 대로 선택된 CAPP-SR의 증상들은 TriPM 전체점수와 3개 하위 요인에 대해 상당한 수준에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45\sim.73$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riPM 대담성을 주요하게 예측하는 CAPP-SR 변인은 지배하려 드는( $\beta=.224$ ), 무심한( $\beta=-.162$ ), 불안감이 부족한( $\beta=.160$ ), 집중력이 부족한( $\beta=-.136$ ) 등이었다. TriPM 비열함을 예측하는 CAPP-SR 변인은 공감하지 못하는( $\beta=.298$ ), 방해하는( $\beta=.138$ ), 편협한( $\beta=.115$ ), 적대적인( $\beta=.185$ ) 등이었다. TriPM 탈억제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CAPP-SR 변인은 무모한( $\beta=.164$ ), 계획성이 부족한( $\beta=.185$ ), 기만적인( $\beta=.106$ ), 조종하는( $\beta=.189$ ) 등이었다.

LSRP 3개 하위요인의 경우, CAPP-SR의 증상들은 상당한 수준에서 준거변인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R^2=.40\sim.63$ ). LSRP-자기중심

성을 주요하게 예측하는 CAPP-SR 변인은 공감하지 못하는( $\beta=.113$ ), 집중력이 부족한( $\beta=.162$ ), 조종하는( $\beta=.282$ ), 자기 정당화( $\beta=-.108$ ) 등이었다. LSRP-냉담성을 예측하는 CAPP-SR 하위 증상으로 무정한( $\beta=.095$ ), 기만적인( $\beta=.270$ ), 조종하는( $\beta=.127$ ), 죄책감이 부족한( $\beta=.192$ )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LSRP 반사회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CAPP-SR의 증상은 적대적인( $\beta=.170$ ), 계획성이 부족한( $\beta=.138$ ), 감정 안정성이 부족한( $\beta=.180$ ), 불안정한 자기개념( $\beta=.216$ ) 등이었다.

표 5는 SD-4 하위 요인 4개에 대한 CAPP-SR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이다. CAPP-SR 33개 하위 증상 중 .30(최소한 중간 이상; Sellbom et al., 2020) 상관을 보이고 있는 SD-4 요인을 최종 준거변인으로 선택했다( $r > |.30|$ ). 따라서 위와 마찬가지로 상관계수 .30 이하의 변인은 분석에서 모두 제외했다.

그 결과 회귀식에서 예측변인으로 선택한 CAPP-SR 증상 수는 준거변인 SD-4 전체점수에서 22개, SD-4 마키아벨리즘에서는 4개, SD-4 자기애성은 8개, SD-4 사이코패시는 22개, SD-4 가학성은 21개였다. 선택된 CAPP-SR 증상들은 SD-4 전체 점수와 4개 하위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R^2=.10\sim.57$ ). SD-4 마키아벨리즘을 대표적으로 예측하는 CAPP-SR 증상은 조종하는( $\beta=.227$ ), 가식적인( $\beta=.175$ ), 자기 중심적인( $\beta=.153$ ) 등이었다. SD-4 자기애성을 예측하는 CAPP-SR 증상은 방해하는( $\beta=.131$ ), 계획성이 부족한( $\beta=.131$ ), 자기 특권의식( $\beta=.147$ ) 등이었다. SD-4 사이코패시를 예측하는 CAPP-SR 증상은 무모한( $\beta=.323$ ), 지배하려 드는( $\beta=.182$ ), 죄책감이 부족한( $\beta=.130$ ), 불안정한 자기개념( $\beta=.171$ ) 등이었다. SD-4 자기애성을 예

표 4. TriPM, LSRP에 대한 CAPP-SR 다중회귀분석

CAPP-SR 예측 변인	준거변인(β)							
	TriPM				LSRP			
	전체	대담성	비열함	탈억제성	전체	자기중심성	냉담성	반사회성
A1. 무심한	-.063	<b>-.162</b>	.072	†	†	.068	—	-.042
A2. 신뢰로운 관계가 없는	†	—	†	†	†	†	†	†
A3. 공감하지 못하는	.072	—	<b>.298</b>	†	.094	<b>.113</b>	.070	.075
A4. 무정한	—	—	.085	.055	.066	—	.095	—
B1. 끈기가 없는	†	-.052	†	†	†	-.028	-.057	.042
B2. 믿을 수 없는	†	—	-.088	†	†	—	<b>.097</b>	.073
B3. 무모한	.109	—	†	<b>.164</b>	†	-.038	—	†
B4. 산만한	—	—	-.053	†	-.069	—	—	†
B5. 방해하는	<b>.120</b>	—	<b>.138</b>	-.060	.083	.047	—	.056
B6. 공격적인	†	—	†	.041	.052	.056	—	.075
C1. 의심하는	†	—	†	†	†	†	†	†
C2. 집중력이 부족한	†	<b>-.136</b>	†	.061	<b>.183</b>	<b>.162</b>	.089	.105
C3. 편협한	†	—	<b>.115</b>	†	.081	.079	†	†
C4. 융통성 없는	.048	—	.101	†	.070	†	—	.110
C5. 계획성이 부족한	.090	-.078	.092	<b>.185</b>	<b>.116</b>	—	.048	<b>.138</b>
D1. 적대적인	<b>.141</b>	—	<b>.185</b>	†	.063	†	—	<b>.170</b>
D2. 지배하려 드는	<b>.144</b>	<b>.224</b>	—	—	—	†	—	—
D3. 기만적인	<b>.170</b>	—	.097	<b>.106</b>	.092	.071	<b>.270</b>	-.093
D4. 조종하는	.091	—	†	<b>.189</b>	<b>.251</b>	<b>.282</b>	<b>.127</b>	.058
D5. 가식적인	†	—	—	—	.052	.100	—	—
D6. 수다스런	.018	—	†	.054	-.049	†	—	-.050
E1. 불안감이 부족한	—	<b>.160</b>	—	—	—	—	—	—
E2. 즐거움이 부족한	—	-.079	—	—	—	—	—	—
E3. 감정 깊이가 부족한	—	—	†	-.055	†	†	—	†
E4. 감정 안정성이 부족한	-.063	—	-.076	†	†	†	—	<b>.180</b>
E5. 죄책감이 부족한	.066	—	.076	†	.044	†	<b>.192</b>	†
S1. 자기 중심적인	-.043	—	-.065	.088	.012	.078	—	†
S2. 자기 과시적인	—	.067	—	—	—	—	—	—
S3. 자기 특별의식	-.043	—	—	—	—	—	—	—
S4. 자기 특권의식	—	—	—	—	—	†	—	—
S5. 자기 불사신 의식	—	.103	—	—	—	—	—	—
S6. 자기 정당화	†	—	-.076	†	-.086	<b>-.108</b>	—	.042
S7. 불안정한 자기개념	<b>.150</b>	-.101	.089	—	<b>.156</b>	.094	—	<b>.216</b>
<b>F</b>	<b>68.492</b>	<b>148.015</b>	<b>86.607</b>	<b>97.411</b>	<b>121.173</b>	<b>62.976</b>	<b>14.137</b>	<b>117.26</b>
<b>R<sup>2</sup></b>	<b>.483</b>	<b>.667</b>	<b>.738</b>	<b>.570</b>	<b>.632</b>	<b>.451</b>	<b>.403</b>	<b>.606</b>

주. CAPP-SR=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y Personality-Self Reporting; TriPM=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LSRP=Levenson's Self-Reporting Psychopathy Scale; 회귀 분석 독립 변인으로 .3이상의 상관관계 계수를 보이는 CAPP-SR 항목을 선택; '—'는 독립변인으로 선택하지 않았음을 의미;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냄; 음영처리(블드체) 된 부분은 상위 4개 회귀계수.

표 5. SD-4에 대한 CAPP-SR 다중회귀분석

CAPP-SR 예측 변인	준거변인(β)				
	전체	마키아벨리즘	자기에성	사이코패시	가학성
A1. 무심한	—	—	—	—	†
A2. 신뢰관계가 없는	—	—	—	.069	†
A3. 공감하지 못하는	—	—	—	—	†
A4. 무정한	—	—	—	—	—
B1. 끈기가 없는	†	—	—	-.059	.042
B2. 믿을 수 없는	—	—	—	—	—
B3. 무모한	.123	—	—	<b>.323</b>	†
B4. 산만한	†	—	—	.061	.061
B5. 방해하는	.104	—	<b>.131</b>	.062	.101
B6. 공격적인	.108	—	—	.072	<b>.183</b>
C1. 의심하는	.066	—	—	†	†
C2. 집중력이 부족한	†	—	—	†	†
C3. 편협한	-.069	—	—	-.065	†
C4. 융통성 없는	.103	—	—	†	.089
C5. 계획성이 부족한	—	—	<b>.131</b>	—	<b>.157</b>
D1. 적대적인	†	—	—	-.065	†
D2. 지배하려 드는	<b>.145</b>	—	—	<b>.182</b>	—
D3. 기만적인	†	—	—	-.051	†
D4. 조종하는	<b>.159</b>	<b>.227</b>	—	.075	<b>.159</b>
D5. 가식적인	<b>.154</b>	<b>.175</b>	—	.043	<b>.163</b>
D6. 수다스런	.075	.075	—	.044	†
E1. 불안감이 부족한	—	—	-.075	—	—
E2. 즐거움이 부족한	—	—	-.094	—	—
E3. 감정 깊이가 부족한	—	—	—	—	—
E4. 감정 안정성이 부족한	†	—	—	.075	†
E5. 죄책감이 부족한	.104	—	—	<b>.130</b>	.137
S1. 자기 중심적인	.075	<b>.153</b>	—	†	†
S2. 자기 과시적인	<b>.127</b>	—	†	—	—
S3. 자기 특별의식	†	—	.089	-.054	—
S4. 자기 특권의식	†	—	<b>.147</b>	—	—
S5. 자기 불사신 의식	—	—	†	—	—
S6. 자기 정당화	-.063	—	—	-.055	-.135
S7. 불안정한 자기개념	—	—	—	<b>.171</b>	.121
<b>F</b>	113.609	133.466	27.458	83.527	83.579
<b>R<sup>2</sup></b>	.579	.223	.106	.500	.517

주. CAPP-SR=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y Personality-Self Reporting; SD-4=Short Dark Tetrad; 회귀 분석 독립 변인으로 .3이상의 상관관계 계수를 보이는 CAPP-SR 항목을 선택; '—'는 독립변인으로 선택하지 않았음을 의미;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 음영처리(블드체)는 상위 4개 회귀계수.

표 6. LSRP, KORAS-G에 대한 TriPM, CAPP-SR의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회귀)	예측 변인	준거 변인( $\beta$ )	
		LSRP	KORAS-G
<b>1. (A)</b>	(TriPM) 대담성	-.084	.116
	(TriPM) 비열함	.445	-.082
	(TriPM) 탈억제	.421	.468
	$R^2$	.640	.165
	$F(df)$	1099.071(3)	120.948(3)
<b>1. (B)</b>	(CAPP-SR) 애착	.190	.064
	(CAPP-SR) 행동	.080	.133
	(CAPP-SR) 인지	.458	-.127
	(CAPP-SR) 지배성	.194	.255
	(CAPP-SR) 정서성	.077	.069
	(CAPP-SR) 자기	-.151	-.101
	$R^2$	.581	.088
	$F(df)$	429.309(3)	29.746(3)
<b>2. (A &amp; B)</b>	(TriPM) 대담성	-.094	.123
	(TriPM) 비열함	.244	-.084
	(TriPM) 탈억제	.330	.479
	(CAPP-SR) 애착	.076	.106
	(CAPP-SR) 행동	.017	.041
	(CAPP-SR) 인지	.254	-.214
	(CAPP-SR) 지배성	.080	.160
	(CAPP-SR) 정서성	.026	.138
	(CAPP-SR) 자기	-.044	-.115
	$R^2$	.704	.194
	$F(df)$	448.635(9)	49.011(9)
<b>(A) TriPM <math>\rightarrow</math> CAPP-SR</b>	$\Delta R^2$	.064	.029
	$\Delta F(\Delta df)$	650.436(6)	71.937(6)
<b>(B) CAPP-SR <math>\rightarrow</math> TriPM</b>	$\Delta R^2$	.123	.106
	$\Delta F(\Delta df)$	19.326(6)	19.265(6)

측하는 CAPP-SR 증상은 방해하는( $\beta=.131$ ), 계획성이 부족한( $\beta=.131$ ), 자기 특권의식( $\beta=.147$ )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SD-4 가학성을 잘 예측하는 CAPP-SR 증상은 공격적인( $\beta=.183$ ), 계획성이 부족한( $\beta=.157$ ), 조종하는( $\beta=.159$ ), 가식적인( $\beta=.163$ ) 등이었다.

CAPP-SR이 기존 준거척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설명력이 증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단계에 걸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기존 국내외에서 잘 타당화 된 척도를 준거변인과 예측변인으로 활용하여 살펴 본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이다. LSRP를 준거변인으로 둔 경우 1단계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개별 TriPM과 CAPP-SR  $R^2$ 은 각각 .640, .581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F는 1099.07 ( $df=3$ ), 429.30( $df=3$ )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의  $\Delta R^2$ 는 TriPM .123, CAPP-SR .064로,  $\Delta F$ 는 TriPM 650.43, CAPP-SR 19.32로 나타나 두 척도 모두가 기존의 하나의 척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력이 증가되는 패턴이었다. KORAS-G를 준거변인으로 둔 경우 1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개별 TriPM과 CAPP-SR  $R^2$ 은 각각 .165, .088로, F는 120.94( $df=3$ ), 29.74( $df=3$ ) 수준이었다. 2단계에서의 차이(증감)  $\Delta R^2$ 는 TriPM .106, CAPP-SR .029로,  $\Delta F$ 는 TriPM 71.93, CAPP-SR 19.26으로 나타나 두 척도 모두가 기존의 하나의 척도에 추가됨으로써 일정 수준 설명력이 증가되는 패턴을 보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TriPM과 함께 최근 사이코패시 성격 평가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CAPP 모델 기반의 CAPP-SR(Sellbom & Cooke,

2019)을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타당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다른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 위험성평가, 한국재범위험성평가 간에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많지 않은 국내외 연구에서 CAPP-SR에 대한 연구가 PPD를 이해하는 데 시사성과 확장성이 있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한국판 CAPP-SR 척도 점수의 구성타당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개념적 수준에서 본 연구자들이 기대한 바와 같이 CAPP-SR 증상의 점수가 TriPM, SD-4, KORAS-G 등과 일관성 있는 점수 패턴을 보여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CAPP-SR 요인에 대한 최적의 요인을 확인한 결과 기존 문헌에서 상정한 6요인 모형이 국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Sellbom et al., 2015; Sellbom et al., 2019). 또한 CAPP-SR 척도 점수는 전체적으로 수렴타당도가 높았다. 개념적 수준에서 유사한 하위 척도들 간의 일치성을 고려할 때 CAPP-SR 하위 증상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TriPM 하위 요인인 대담성, 비열함, 탈억제성 간 상당한 일치성을 보였다. 특히 미국과 뉴질랜드, 대단위로 표집된 일반집단(일반시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ellbom 등(2019)의 연구와 리투아니아 일반인과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Sellbom 등(2020)의 다른 연구 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CAPP-SR은 다양한 나라와 맥락에 걸쳐 TriPM과 좋은 수렴타당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 검토와 유사 개념에 따른 예측을 기반으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였던 CAPP-SR 수다스런 증상과 TriPM 대담성 요인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Sellbom 등(2019)과 Sellbom 등(2020)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인데 대담성보다는 오히려 비열함과 탈억제성과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CAPP-SR 증상 중 지배하려 드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증상은 TriPM 대담성(boldness)과 전체적으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론적 수준에서 정의하는 지배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TriPM 대담성은 개념적 수준에서는 다른 영역을 측정하는 듯 보인다. 최근 Gatner 등(2016)도 TriPM 요인 중 대담성이 CAPP의 일부 요인과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부적상관을 보이는 등 일련의 논쟁을 제기하였다. 이런 이유는 CAPP 모델을 기반으로 한 증상과 영역들이 과소표현(under-representation)된 일군의 도구(예, PCL-R)와는 달리 사이코패시의 다양한 개념을 광범위하게 반영하여 정의한 데 그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Lilienfeld et al., 2012; Miller & Lynam, 2012). 또한 PPI-R처럼 대담성은 소위 정서적으로 불안감의 결핍 혹은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 등과 관련 된 것으로 집단에서 친사회적 혹은 유사적응적 기능을 보이며 다른 사이코패시 증상과는 오히려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Gatner et al., 2016).

반면 CAPP-SR 자기 과시적인 증상은 이론·개념적으로 유사한 TriPM 대담성과 관련성을 보인 반면 비열함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TriPM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을 준거 변인으로 설정한 경우 CAPP-SR 적대적인, 지배하려 드는, 기만적인, 불안정한 자기개념 증상 등이 TriPM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 세부 영역별 수준에서는 CAPP-SR 지배하려 드는 증상이 TriPM 대담성을, CAPP-SR 공감하지 못하는 증상이 TriPM 비열함을, 그리고 CAPP-SR 조종하는 증상이 TriPM 탈억제성을 잘 예측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다른 선행 연구 결과

도 일치하는 부분이다(Sellbom et al., 2019; Sellbom et al., 2020).

TriPM 결과와 비슷하게 LSRP와의 수렴 타당도 또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기존 선행 연구(Sellbom et al., 2018; Cooke et al., 2012; Cooke & Logan, 2018; Patrick et al., 2009; Sellbom, 2018)를 고려해볼 때 LSRP 자기중심성은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 CAPP-SR 자기 중심적인, 자기 정당화, 조종하는 등의 하위 세부 증상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LSRP 냉담성은 CAPP-SR 죄책감이 부족한, 기만적인 등의 하위 증상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LSRP 반사회성은 CAPP-SR 감정 안정성이 부족한, 적대적인, 집중력이 부족한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CAPP-SR의 하위 척도 중 특히 인지, 행동 요인이 LSRP 3개 요인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CAPP-IRS(면담기반 기관 평가척도) 인지 요인이 폭력성과 사이코패시 성격에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Florez et al., 2015; Hoff et al., 2012; Kreis & Cooke, 2011; Kreis et al., 2012; Sea, 2018; Sorman et al., 2014). 예컨대 CAPP 하위 증상과 PCL-R 요인 간에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인지 요인이 PCL-R 전체점수, 요인3, 요인4와 관련성을 보였다(Cooke et al., 2012; Sea, 2018).

LSRP와 관련성이 높은 변인을 준거 변인으로 상정한 경우, CAPP-SR 조종하는, 불안정한 자기개념, 집중력이 부족한 증상 등이 LSRP 전체를 대표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었다. 영역별 수준에서는 CAPP-SR 조종하는 증상이 LSRP 자기중심성을, CAPP-SR 기만적인, 죄책감이 부족한 등의 증상이 LSRP 냉담성을, CAPP-SR 불안정한 자기개념, 감정 안정성이 부족한 등이 LSRP 반사회성을 잘 예측하였다. 기존 북미, 뉴질랜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

행 연구 결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Sellbom et al., 2019; Sellbom et al., 2020).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SD-4와도 개념적 관련성을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 따른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SD-4 마키아벨리즘은 CAPP-SR 지배성 요인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자기애성은 CAPP-SR 자기 요인과 SD-4 사이코패시는 CAPP-SR 애착, 행동, 전체점수와 관련성을 보였다(Paulhus, Curtis, & Jones, 2018). 또한 기존 문헌을 볼 때 CAPP-SR 행동과 지배성 요인은 이론적으로 SD-4 가학성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Paulhus & Buckels, 2020; Foulkes, 2019).

예측대로 SD-4 마키아벨리즘은 CAPP-SR 지배성 요인 특히 조종하는, 가식적인, 수다스런 등의 증상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SD-4 자기애성은 자기 요인 중 자기 과시적인, 자기 특별의식, 자기 특권의식, 자기 불사신 의식 등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SD-4 사이코패시와 가학성은 개념적으로 유사한 CAPP-SR 모든 요인, 전체점수에서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CAPP-SR 조종하는 증상은 SD-4 마키아벨리즘 요인을, 자기 특권의식은 자기애성 요인을, 무모한은 SD-4 사이코패시 요인을, CAPP-SR 공격인 증상은 가학성 요인을 두드러지게 설명하고 있었다.

KORAS-G와도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높지는 않았다. CAPP-SR 개별 증상은 전체적으로 기능적 손상과 특질 수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문항은 다소 역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정적 요인을 담고 있는 KORAS-G와는 낮은 상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Cooke & Logan, 2015). 이 때문에 6개 CAPP-SR 하위 요인 중 인지, 정서성, 자기와는 관련성 수준이 다른 요인에 비해 다

소 낮았다.

전체적으로 구성타당도와 수렴타당도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동양권 문화인 한국에서 자기보고식 평가도구 CAPP-SR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KORAS-G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화적 변인이 포함된 국내 도구와의 수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반면에 몇 가지 제한점도 존재한다. 가장 먼저, 본 연구의 표본 대상이 남성 범죄자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이론 인해 일반인과 범죄자 집단, 성별, 적용 장면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고안된 CAPP-SR의 일반화 가능성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연구 집단을 확장하여 강제수용/치료감호 범법환자, 여성과 남성, 일반인 집단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본 연구가 사용한 준거척도가 대부분 자기보고식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유사성으로 인해 다소간 상관 수준을 과도하게 추정되었을 수도 있다(Sellbom et al., 2020). 따라서 의미 있는 해석을 위해서는 현 연구보다 보수적인 효과 크기 추정치를 사용하여 가외 변인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큰, 보통, 작은 정도의 범주). 다음으로 국내외에서 사이코패시 평가도구로 가장 잘 알려진 PCL-R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지 못한 점이다. 실제 사이코패시 성격장애(PPD)를 가장 잘 담아내는 도구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아야 엄격한 수준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개발되어 활용 중인 KORAS-G가 사이코패시가 갖는 반사회성과 충동성과의 높은 관련성을 근거로 선정하였다. 향후 연구



에는 추가적으로 PCL-R 간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PPD에 대한 임상적 이해도 넓혀 임상 현장에서 위험성평가와 범죄 행동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Skeem et al., 2011). 이런 측면에서 향후 CAPP-SR의 예측 타당도 검증이 필수적으로 뒤따를 필요가 있다.

앞서 연구의 목적에서도 기술 한 바와 같이 CAPP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차원적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6개 하위 요인이 주제별 수준에서 묶여져 있다. 따라서 개별 요인의 증상과 이들 하위 증상의 수준이 임상적 효용성을 높여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색적 수준에서 6개 하위 요인 수준이 위계적으로 사이코패시 구성개념에 얼마나 중심화가 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도 자체가 잠재적인 수준에서 요인 중심의 해석을 좀 더 촉진 시킬 수도 있으며 사이코패시의 수준을 이해하는 데 부차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서종한 (2020). 우리 옆집에는 사이코패스가 산다. 서울: 시간여행.
- 서종한, 김경일 (2019). 한국형 사이코패스 원형성과 일반인의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정담론*, 13(3), 87-115.
- 서종한, 신강현, & 김경일 (2018). 한국사회에서의 사이코패스 개념, 믿음, 태도에 관한 연구: 사이코패스성격장애종합평가(CAPP)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2(2), 5-28.
- 이수정, & 고려진 (2011). 한국판 위험성평가 도구, KORAS-G(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General) 타당도 연구. *한국범죄학*, 5(2), 221-258.
- 조은경, 이수정 (2008). 한국판 표준화. PCL-R 전문가지침서. 서울: 학지사(RD Hare 저, 조은경, 이수정 역).
- 최선희, 서종한 (2019). 한국판 삼원사이코패스 측정도구(K-TriPM) 타당화 연구. *한국범죄학*, 13(2), 5-31.
- Allport, G. W., & Odbert, H. S. (1936). Trait-names: A psycholexical study. *Psychological Monographs*, 47(1), i-171.
- Blashfield, R. K., & Livesley, W. J. (1991). Metaphorical analysis of psychiatric classification as a psychological tes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3), 262-270.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hristian, E., & Sellbom, M.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expanded version of the three-factor 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8(2), 155-168.
- Cleckley, H. (1941). *The mask of sanity: An attempt to reinterpret the so-called psychopathic personality*. <https://www.gwern.net/docs/psychology/1941-cleckley-maskofsanity.pdf>
- Collison, K. L., Miller, J. D., Gaughan, E. T., Widiger, T. A., & Lynam, D. R.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uper-short form of the Elemental Psychopathy Assess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7, 143-150.
- Cooke, D. J., & Logan, C. (2018). Capturing psychopathic personality: Penetrating the mask of sanity through clinical interview. In C. J.

- Patrick (Ed.), *Handbook of psychopathy* (2nd ed., pp. 189-210). Guilford Press.
- Cooke, D. J., Hart, S. D., Logan, C., & Michie, C. (2004).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Institutional Rating Scale (CAPP-IRS)*. Glasgow Caledonian University.
- Cooke, D. J., Hart, S. D., Logan, C., & Michie, C. (2012). Explicating the construct of psychopath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onceptual model,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APP).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11*(4), 242-252.
- Edens, J. F., Smith, S. T., Sörman, K., Kelley, S. E., Rulsh, A., & Mowle, E. N. (2020). Can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Be Used to Measure the Triarchic Model Constructs of Boldness, Meanness, and Disinhibition? A Scale Derivatio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8.
- Florez, G., Casas, A., Kreis, M. K., Forti, L., Martinez, J., Fernandez, J., Conde, M., Vazquez-Noguerol, R., Blanco, T., Hoff, H. A., & Cooke, D. J. (2015). A prototypicality validation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CAPP) model Spanish versio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9*(5), 707-718.
- Foulkes, L. (2019). Sadism: Review of an elusive constru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1*, 109500.
- Hare, R. D. (1998). Psychopaths and their nature: Implications for the mental health and criminal justice systems. *Psychopathy: Antisocial, criminal, and violent behavior, 188*-212.
- Hare, R. D. (2003).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 Neumann, C. S. (2010). The role of antisociality in the psychopathy construct: Comment on Skeem and Cooke (2010). *Psychological Assessment, 22*(2), 446-454. <https://doi.org/10.1037/a0013635>
- Hart, S. D., Cox, D. N., & Hare, R. D. (1995).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 (PCL: SV)*. Multi-Heath Systems.
- Cooke, D. J., & Logan, C. (2015). Capturing clinical complexity: Towards a personality-oriented measure of psychopath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4), 262-273.
- Hoff, H. A., Rypdal, K., Mykletun, A., & Cooke, D. J. (2012). A prototypicality validation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Model (CAPP).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6*, 414-427.
- Kreis, M. K. F., Cooke, D. J., Michie, C., Hoff, H. A., & Logan, C. (2012).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APP): Content validation using prototyp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6*, 402-413.
- Lilienfeld, S. O., Patrick, C. J., Benning, S. D., Berg, J., Sellbom, M., & Edens, J. F. (2012). The role of fearless dominance in psychopathy: Confusions, controversies, and clarification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3*, 327-340.
- Lynam, D. R., Sherman, E. D., Samuel, D., Miller, J. D., Few, L. R., & Widiger, T. A. (2013). Development of a short form of the elemental psychopathy assessment. *Assessment, 20*, 659-

- 669.
- McCord, W., & McCord, J. (1964). *The psychopath: An essay on the criminal mind*. D. Van Nostrand.
- Miller, J. D., & Lynam, D. R. (2012). An examination of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s nomological network: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3*, 305-326.
- Patrick, C. J., Fowles, D. C., & Krueger, R. F. (2009). Triarchic conceptualization of psychopathy: Developmental origins of disinhibition, boldness, and meann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 913-938.
- Patrick, C. J., & Drislane, L. E. (2015). Triarchic model of psychopathy: Origins, operationalizations, and observed linkages with personality and gener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83*(6), 627-643.
- Patrick, C. J., Fowles, D. C., & Krueger, R. F. (2009). Triarchic conceptualization of psychopathy: Developmental origins of disinhibition, boldness, and meann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 913-938.
- Paulhus, D. L., Buckels, E. E., Trapnell, P. D., & Jones, D. N. (2020). Screening for Dark Personalitie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 Paulhus, D. L., & Dutton, D. G. (2016). *Everyday sadism*. In V. Zeigler-Hill & D. K. Marcus (Eds.), *The dark side of personality: Science and practice in social, personality, and clinical psychology* (p. 109-120).
- Paulhus, D. L., Curtis, S. R., & Jones, D. N. (2018). Aggression as a trait: the Dark Tetrad alternative.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9*, 88-92.
- Pedersen, L., Kunz, C., Rasmussen, K., & Elsass, P. (2010). Psychopathy as a risk factor for violent recidivism: Investigating the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 (PCL: SV) and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APP) in a forensic psychiatric sett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9*, 308-315.
- Poythress, N. G., & Hall, J. R. (2011). Psychopathy and impulsivity reconsidered.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2), 120-134.
- Sea, J. (2018). *Cross-cultural generalizability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APP) in South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Burnaby, BC, Canada.
- Sörman, K., Edens, J. F., Smith, S. T., Svensson, O., Howner, K., Kristiansson, M., & Fischer, H. (2014). Forensic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erceptions of psychopathy: A prototypicality analysis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in Sweden. *Law and Human Behavior, 38*, 405-417.
- Sellbom, M., Cooke, D. J., & Hart, S. D. (2015). Construct validity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CAPP) concept map: Getting closer to the core of psychopathy.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14*(3), 172-180.
- Sellbom, M. (2018). The triarchic psychopathy model: Theory and measurement. In M. DeLisi (Ed.),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 psychopathy and crime* (pp. 241-264). Routledge.
- Sellbom, M., & Cooke, D. J. (2019). *Manual for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Self-Report (CAPP-SR)*. Manuscript in preparation.
- Sellbom, M., Cooke, D. J., & Shou, Y. (2019).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Self-Report (CAPP-SR). *Psychological Assessment, 31*(7), 878-894.
- Sellbom, M., Laurinaitytė, I., & Laurinavičius, A. (2020). Further validation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Self-Report (CAPP-SR) in Lithuanian offender and nonoffender samples. *Assessment, 1073191120914403*.
- Sellbom, M., Laurinavičius, A., Ustinavičiūtė, L., & Laurinaitytė, I. (2018). The 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An examination in a Lithuanian inmate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30*(7), e10-e20.
- Smith, S. T., Edens, J. F., Clark, J., & Rulseh, A. (2014). "So, what is a psychopath?" Venireperson perceptions, beliefs, and attitudes about psychopathic personality. *Law and human behavior, 38*(5), 490.
- Sörman, K., Edens, J. F., Smith, S. T., Svensson, O., Howner, K., Kristiansson, M., & Fischer, H. (2014). Forensic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erceptions of psychopathy: A prototypicality analysis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in Sweden. *Law and Human Behavior, 38*(5), 405.
- van Baardewijk, Y., Andershed, H., Stegge, H., Nilsson, K. W., Scholte, E., & Vermeiren, R. (2010). Development and tests of short versions of the 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and the 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child vers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6*, 122-128.
- Verschuere, B., & te Kaat, L. (2019). What are the core features of psychopathy? A prototypicality analysis using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Advanced online publication.

1 차원고접수 : 2021. 10. 04.

심사통과접수 : 2021. 11. 23.

최종원고접수 : 2021. 11. 23.

## **The Validity Study of the CAPP-SR in Korean Correctional Offenders**

**Jonghan Sea**

Department of Psychology, Yeungnam University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CAPP) is an emerging comprehensive approach that makes use of 99 items in 33 symptoms to well-represented 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 but cross-cultural generalizability of this potential model have not endured extensive validation to date. The current study sought to validate the recently published CAPP-Self-Report form(CAPP-SR). 311 participants were derived from eleven prisons by the systematic sampling. They were administered the CAPP-SR, Triarchic Psychopathy Measure(TriPM), Levenson's SRP(LSRP), Short Dark Tetrad(SD-4), and 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General(KORAS-G designed for predicting Korean offenders' recidivis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APP-SR total, domain, and symptom scores were generally associated with TriPM, LSRP, SD-4, and KORAS-G scor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conceptual expectations. Also, the findings cross-culturally provide support for construct validity and incremental validity of the CAPP-SR in Korea as well as have clinical implications for the CAPP model more broadly, which are discussed.

*Key words* : *psychopathic personality,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 self-reporting, correctional offenders*